

기독교상담 사례개념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혜정* 강연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로 기독교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상담 전문가 7인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과 Nvivo 12를 활용한 분석을 통하여 총 94개의 구성의미, 29개의 주제와 12개의 주제군으로 도출되었다. 12개의 주제군은 다시 상담자 관련 영역 3개의 주제군과 하나님 관련 영역 1개의 주제군, 그리고 내담자 이해 요소를 포함한 사례개념화 구성 및 기독교상담 과정 관련 8개의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와 주제군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를 위한 상담자 영역 3개의 주제군은 '기독교상담으로의 부르심', '사례개념화를 위한 토대 마련',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통로로서의 상담자의 역할 경험'이다. 둘째,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과정에서 하나님 영역에 포함되는 주제군은 '상담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사례개념화 요소와 구성 영역으로 8개 주제군이 도출되었고, '성경적 인간관으로 내담자를 봄'과 '내담자를 존중하며 문제를 이해함', '상담목표 세우기', '문제에 간혀있던 내담자의 알아차림 돕기', '실존적 주제로 진리 탐색을 도움',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도록 도움', '내담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통로가 됨', '성화를 향한 새로운 삶을 연습하도록 도움'이 도출되었다.

주제어: 기독교상담, 사례개념화, 현상학적 연구, 기독교상담자, 사례개념화 경험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기독교상담 박사, 제1저자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 이 연구는 고신대학교 이혜정의 박사학위 논문(2023년 8월, 지도교수: 강연정)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쟁과 자연재해, 세계를 강타한 질병과 불안정한 경제, 과학의 빠른 발달과 밀려오는 화려한 문화들 속에서 실재 없이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로 인한 도전과 부담, 혼란스러움과 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불평등감과 타인과의 비교의식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김경미, 2016; 이수환, 2016; 양준용, 2023). 이에 심리상담은 인간의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었고 ‘심리학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황규명, 2011).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종교를 대신하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오랜 인류의 역사 동안 치유를 담당해온 종교의 영적 영역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상담에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성적 가치를 존중받고 싶어한다(안석, 2013). 기독교상담은 진리 안에서의 전인적인 접근을 통해 내담자의 영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당면한 문제를 다루는 폭넓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일반상담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담심리는 내담자가 가진 부정적 감정이나 역기능적 사고의 변화, 개인의 능력을 활용한 자아실현의 추구, 내담자 행동의 통제 및 변화추구 등 내담자가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사랑과 공의, 죄를 다루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상담(안경승, 2012)과 포용하는 범위와 정도가 다르다. 또한 자기실현과 긍정성에 의존하여 개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가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일반상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되는 영적 만족감에 대한 추구(박은호, 2021)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이재현, 2020)하는 영적 행복의 수준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마음챙김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자 하는 상태를 추구하지만, 기독교상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 마음이 비워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그리스도로 채워져 살아감(갈 2:20)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에까지 이어진다(Johnson, 2007).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점이 기준이 되는 기독교상담은 사례를 개념화하는데 있어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는 초점과 방향성이 일반상담과 달리 훨씬 넓다고 볼 수 있다.

사례개념화는 상담의 시작부터 마지막 종결에 이르기까지 상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상담자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강민아, 2022),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된다(김계현, 이운주, 2002; 이명우,

2004). 사례개념화는 내담자가 호소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신체생리, 인지, 정서, 대처 행동, 대인관계 문제 등)를 초래하고 지속시키는 근원 및 유지요인과 지금 상담에 오게 한 결정적 사건인 촉발요인에 대해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핵심가설을 수립하는 것이다(Sperry & Sperry, 2012). 상담자는 사례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와 연관된 삶 전반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의 파악을 통해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여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목표와 전략을 구상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명우, 2004; 이윤주, 2001; Sperry & Sperry, 2012). 이러한 사례개념화 작업은 본질적으로 상담자의 이론적 입장에 근거하며, 기독교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담자의 신학적 입장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Adams는 상담자의 신학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 가치, 태도,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도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으며 상담과 상담자의 신학은 유기적 관계를 지닌다고 보았다(Adams, 1979; 김규보, 2019). 또한 김규보(2019)는 창조-타락-구속-완성으로 구성되는 성경의 내러티브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메타내러티브(Metanarrative)로서 기독교상담에 적용할 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상담의 메타시스템'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기독교상담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독교상담자로 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Freud가 주장한 정신분석학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하거나, 상담의 기술적 방법의 습득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등(Hunter & Patton, 1995) 사례개념화의 기독교적 접근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기독교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계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나(김규보, 2019; 전요섭, 2017; 박안나, 2021),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상담자들이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를 위하여 개별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때로 기독교상담이 아닌 일반상담의 영역에 헌신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적용가능한 기독교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모형과 기독교상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틀의 개발이 시급하다(김경미, 2018).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상담의 현장에서 상담자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의 현상에 대하여 탐구하여 그 본질적 의미와 구성이 어떠한가를 도출하고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기독교상담

기독교상담은 목회자가 영혼 돌봄을 위해 진행하는 기독교 내의 다양한 형태의 치유와 지도, 지탱해주고 만족감을 주는 활동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강용원, 2004, Clebsch & Jaekle, 1994). 그러나 서구의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상당수(Marx, Nietzsche, Freud, James, Dewey, Russell, Sartre, Dawkins)가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폄하시키면서 종교적 믿음과 실천을 축소하고 그 영역을 제한하며, 다른 세계관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증가시켜나갔다(Johnson, 2010). 이러한 흐름은 심리학의 영역에서도 드러나 결정론적 무의식을 강조하는 Freud의 정신분석 이론, James의 실용주의에 근거한 인본주의와 낙관주의, 인간을 기능적, 도구적으로 이해하는 인지-행동주의 등 과학적 탐구에 근거한다는 명목하에 성경적 인간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 혼, 육의 전인적 회복에 대한 관심이 상실되어왔다(Hurding, 2000). 이러한 흐름에 반하여 Adams(1973)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 되어주시며 인간은 그 안에서 영향을 받으나, 죄성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과 일반상담이론은 다시 그 실패한 것들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았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고취 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근본적으로 오류이며,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상충한다는 것이다(김준, 2015).

김용태(2006)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자체를 기독교상담으로 본다. 그 만남은 자연적이면서도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삶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영생과 풍성한 삶(요 10:10)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매우 개인적이면서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시간에 따라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자신을 비우는 형태로 발전한다. 결국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온전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만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활동이다(김용태, 2006). 또한 정정숙(2002)는 성경적 상담에 대하여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며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종합학문이라고 보았다. 기독교상담은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대면 관계에서 당

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비성경적인 사고, 감정, 행동, 성품을 성경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재교육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독교상담의 목적은 Crabb(2014)이 이야기한 기독교상담을 통한 내담자의 재방향을 통한 발달과도 연관이 된다. Crabb(2014)은 기독교상담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돕는 활동이며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들어서도록 돕는 것(move over, 옮아가기, 전이)과, 하나님의 길 안에서 성숙하도록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즉 옛 자기에서 새로운 자기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라 보았다. 이 새로운 자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내담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 Adams(1975)는 일반 심리상담과 정신의학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므로서 진리에서 떨어져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었으나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사고, 감정, 행동, 태도, 감수성, 지각, 이해 등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에서는 기독교상담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모든 변화의 본질, 목표, 과정은 성경에 근거하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내면의 삶에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곧 기독교인의 사고, 태도, 행동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점점되어야 하며, 상담을 통해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성장한 옛 유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성장하는 새로운 유형을 입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상담자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보았다(정정숙, 2001).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속에도 사마리아의 여인, 삭개오와의 만남 등 사람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상담적 사역이 있었다(강용원, 2013).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곁에 언제나 계시면서 돕는자(Helper), 위로자(Comforter), 상담자(Counselor), 중재자(Intercessor)가 되어주신다(문효식, 2009). 보혜사(保惠師)는 '도울 보, 은혜 해, 스승 사'자를 써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의 의미라는 뜻이다. 결국 기독교인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소통하고 해결 받아가는 상담적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기독교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영적 변화까지도 포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 사이의 대화와 경청, 이해와 해결방안의 모색, 감정적 공감과 이성적 방안 마련 등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본성애의 변화, 즉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과정을 통해 그의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 중심(theocentric)의 삶의 방식으로까지 변화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정숙, 2002).

이관직(2007)은 기독교상담이란 기독교적인 신관, 기독교적인 인간관, 그리고 기독

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상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치료적인 맥락 속에서 도움을 주는 활동과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독교상담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의 것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 중심적인 것으로 나누어 다룬다. 만약 세상이 중심이 되거나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면 인간의 문화와 사회에서 경험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의 사건들 -홍해의 기적(출 14:21), 오병이어의 기적(마 14:19-21), 늦뱀사건(민 21:9) 등의 말씀들에 대하여 인간들은 자신의 경험에 고착된 이성의 역할로 인해 자신의 이성의 틀로 인해 완강하게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돈이 최고'였던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지닌 사람이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충격적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삶의 현상이 무너짐을 경험함으로써 인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즉 전도자에 의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균열의 틈바구니를 뚫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역사하시면서 그가 가진 세계관이 붕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세계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안점식, 2015). 이처럼 기독교상담은 한 사람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들은 일반이론들을 기독교세계관으로 비평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적 대안을 제공하여(강연정, 2019) 사례개념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독교상담과 사례개념화

(1) 사례개념화

사례개념화는 이론과 실재를 결합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며, 상담사례를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한 역량 혹은 기술(Loganbil & Stoltenberg, 1983)로서 상담자의 전문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이윤주, 2001, 2016; 이명우, 2004; 고기홍, 2005; 손은정 & 이해성, 2002; 왕은자, 2001).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조합이나 상담자가 선호하거나 취하게 된 이론적 접근에 따라 다른 사례개념화가 도출되고,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른 결정들이 내려질 수도 있다(Beutler & Harwood, 1995; Lambert, Garfied, & Brgin, 2004; Berman, 2018). 그러나 성과연구들에 의하면 내담자의 특성과 현재 호소문제에 따라 통합적 혹은 체계적 절충의 방식(Lambert et al, 2004)으로 사례개념화하는 것이 상담의 성과 도출에 도움이 된다(Berman, 2018). 실제로 많은 상담자들이 다양한 이론의 절충을 통해 사례개념화를 구성하고 상담에 접근한다.

잘된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에 대한 깊은 이해에 근거한 전략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돕지만, 사례개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담의 경우, 내담자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휘말리거나 좌절감을 경험하는 등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Berman, 2015). 이처럼 사례개념화는 내담자가 지닌 문제를 다루어 심리적 불편감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행착오적 접근을 줄여주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거시조망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실현 가능성 높은 접근을 제공하는 상담의 지도 역할을 한다(서은경, 원수경, 김수정, 2021). 잘 구성된 사례개념화는 효과적인 상담 목표와 계획 수립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여 내담자에게 구체적이고 최대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상담목표와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합의된 목표설정의 과정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내담자는 상담의 목표를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상담의 동기가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상담자와 상담의 목표에 대하여 동의, 협력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신뢰로운 상담관계나 라포를 형성하는 등 상담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김수현, 2006).

상담자에 의해 세워진 핵심가설, 상담의 목표를 포함한 사례개념화는 상담 초기부터 시작하여 상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동안 검증하고 수정하며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Eells, 1997; 이윤주, 2001). 사례개념화는 삶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해 내담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조정, 발전, 통합, 재구성하여 인과적으로 조합하고 설명을 도출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Schwitzer & Rubin, 2012). 내담자의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 흩어진 정보와 다양한 자극에서 도출된 이해, 관찰을 통한 가치관, 사상 등의 요소들을 상담자의 이론을 통해 이해하여 변화의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Kuyken(2008)은 증거기반 CBT에서 사례개념화를 도자기에 비유하여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열이 도자기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듯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협력적 경험주의가 원동력이 된다는 것, 둘째, 도자기가 화학적 반응을 통해 변화되는 것과 같이 사례개념도 상담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 셋째, 도자기에 넣은 재료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열이 가해질 때 생성되는 물질이 다름과 같이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상담진행의 모든 단계에서 내담자의 강점을 통해 고통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상담사의 전문성과 상담의 효과성에 많은 연관이 있는 사례개념화 연구는 사례개념

화 능력과 상담 의도에 적합한 상담기술의 활용의 연관성, 상담경력에 따른 사례개념화 수행수준의 차이(이윤주, 김계현, 2002, 손은정, 이해성, 2002), 사례개념화 교육 연구(이명우, 2004; 이명우, 박명희, 2015) 외에도 사례개념화 평가항목(서경희, 김지현, 2008)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사례개념화의 요소를 폭넓게 도출하는 연구들(이윤주 2001; 김용태 2016)과 사례개념화의 기능 및 구성을 살펴본 연구(이명우, 2004), 사례개념화 개념도의 도출을 위한 연구(이윤주, 2016; 박정, 2022), 그 외에 진로상담(이지은, 2018), 중독상담(김재환, 2022), 미술, 예술 치료(조은실, 2019) 등의 상담의 이론별, 주제별, 도구별 접근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특정이론에 근거한 연구도 다수 있으나(고기홍, 2005; 박정, 2022) 통합적이고 범이론적 입장에서 사례개념화에 대한 연구(Sperry & Sperry, 2012; 이윤주, 2016)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2)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는 상담자에 따라 선호하는 심리상담이론에 대한 차이(Beutler & Harwood, 1995; Lambert, Garfield, & Brgin, 2004; Berman, 2018) 뿐 아니라 기독교상담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 관점의 차이 등 상담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사례개념화의 주체인 상담자의 정체성은 주로 상담자의 상담기술, 상담지식, 이론적 관점, 소속된 상담커뮤니티 등에 의해 정해진다. 곧 사례개념화는 상담자가 교육받은 이론적 지식, 인간에 대한 정리된 관점, 자신이 소속된 커뮤니티 등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자의 '치료적 자아'는 직업적 자아(역할, 결정, 윤리)와 개인적 자아(가치, 도덕, 인식)의 통합을 통해서 드러난다(Gibson, Dollarhide, & Moss, 2010). 기독교 상담자는 일반 상담자와 개인적 자아의 영역에서 근원적 차이가 있다.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자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속한 환경과 상황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명에 근거한다. 기독교 상담자는 도덕적 치료적 이신론이 지배적인 문화적 관점 속에서도 구속적 삼위일체적 유신론에 대한 자신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즐거이 형성해 나가는 과학이 곧 신학이라고 볼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경이로움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을 인식하여 신학적 발전을 이룰 뿐 아니라 상담적으로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한다(Vanhoozer, 2009). 기독교 상담에서 상담자는 개인적 신앙의 경험이 적극적으로 작용되는 현장 속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의 현장에서 사례개념화의 기술로서 일반이론 뿐 아니라 기독교적 인간관과 세계관에 근거하여 내담자를 파악하고, 상담의 목적 설

정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며,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영성과 지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민감성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돌보시는 주님과 의 지속적 교제에 힘써야 한다(잠 4:23; 시 112:7-8). 상담자의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 이론적 배경과 기술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기독교 상담적 사례개념화는 실제 내담자의 삶에 구조화된다. 이와같이 길을 찾는 지도(서은경, 원수경, 김수정, 2021)와 같이 상담에 큰 영향을 주는 사례개념화는 상담자의 정체성 형성과 연관되며, 기독교 상담자가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요섭(2017)은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대하여 다루면서 사례개념화의 기능을 내담자 이해의 부분,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설명 부분, 내담자와의 상담목표 및 전략 수립을 통한 안내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일반상담이나 일반이론에 근거한 상담은 결국 상담자가 택한 이론적 배경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 신앙적이거나 영적 부분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목표 수립의 단계에서 신앙적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나 가계도를 통한 내담자 이해의 단계에서 가정 내의 영적 부분들을 고려하여 점검하는 등 신앙적이고 영적인 요소들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는 과정 속에서는 기독교상담의 핵심적인 두 축인 죄와 소망의 구조를 대입하여 이해함으로써 내담자의 죄로 인한 절망을 다루거나 절망에서 벗어나 긍정적 미래 인식(구원과 천국)을 갖는 것의 소망까지 다루도록 제안한다.

성경적 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박안나(2021)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적 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영적 기능을 임상에 적용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Sperry와 Sperry의 사례개념화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Sperry와 Sperry의 모형은 일반상담에도 사례개념화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로서 다음의 관점이 강조된다. 먼저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촉발요인에 대한 패턴화된 반응으로 보고 이를 자극하는 촉발요인과 부적응적 패턴을 진단한다. 임상적으로는 부적응적 패턴을 촉진한 이유와 패턴이 활성화되는 유지요인을 개념화하며, 상담을 통해 부적응적 패턴에서 적응적 패턴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전략적으로 다룬다(Sperry & Sperry, 2012). 그러나 Sperry와 Sperry의 사례개념화의 구조에는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관, 변화모델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독교상담에서 적용될 때에는 유발요인이나 유지요인 등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문제에 대한 분석에 성경적 인간관이나 변화모델, 성경의 권위 등의 적용이 권장된다.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인지구조를 반영하여 상담에 적용되는 인지

적 과정이므로 내담자의 다양한 정보의 흩어진 퍼즐을 잘 배열하고 맞추며 드러나 있지 않은 내담자 문제의 이면을 그리는 상담자의 지식과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주혜선,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는 기독교 상담자의 신학(Adams, 1979)과 세계관(이관직, 2007)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영적 인지능력(김준, 2013)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와 차이를 지닌다. 특히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기독교상담에서의 메타시스템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창조-타락-구속-완성의 이 구조를 사례개념화에 전략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내담자의 사례를 이해하고 다루는 과정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내담자의 인지, 정서, 의지, 행동, 가족체계, 공동체, 사회문화의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이 메타시스템의 구조를 사례개념화에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해 나가는 상담적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김규보, 2019). 또한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작용(딤후 3:16)하는 근거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롬 6:5)하는 성도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게하므로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권진숙(2023)은 기독교상담에서 Edwards(1983)의 전개념적(pre-conceptual) 하나님 체험을 적용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루어 나가는 중에 내담자의 체험을 경청하게 되는데, 비록 기독교적 용어의 사용이나 신학적 내용에 대한 상담이 아닐 때에도 내담자가 고난과 상처, 문제가 되는 삶의 어두운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과 은총의 경험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개념적 경험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상담의 현장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삶을 이해할 때에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의 관점을 전제로 하여 내담자의 삶의 경험을 경청해 나간다면 내담자의 삶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에의 체험이 아닌 경험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담자는 내담자를 위주로 하여 지나치게 경계를 두는 전문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정연득, 2014) '내가 하는 기독교 상담의 현상이 내담자의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방편으로 사용되는가?'의 근본적 질문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상담적 사례개념화를 구조화할 수 있다(권진숙, 2023). Richards와 Bergin(1997)도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과 더불어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가치들에 대한

상담자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무책임함이라고 보았다. 기독교 상담자는 사례개념화 할 때 내담자의 호소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을 위하여 일반상담이론과 기술 외에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위한 정서적 촉진 및 영적 성장을 위한 개입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Vanhoozer, 2009). 결국 기독교상담의 현장에서 효과적 사례개념화는 상담적 목표와 개입, 그리고 치료적 관계의 형성과 상담적 전략 수립 등 일반적 사례개념화의 구조를 따르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상담자에게 허락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적 지혜를 적용하고, 문제의 해석이나 상담적 목표를 설정하여 내담자와 합의해 가는 과정 중에도 내담자에게 영적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영적자원을 전달하며, 이러한 영적 자원이 내담자가 문제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지지요소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전요섭, 2017).

이처럼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기독교적 인간관을 가지고 내담자의 문제에 근본이 되는 영적 정체성과 안정감까지 고려하면서 사례개념화를 할 수 있다(김준, 2013). 이러한 기독교상담적 사례개념화를 통한 접근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안정적인 치료적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서로 믿음과 가치에 차이가 있더라도 안전감과 신뢰감을 지닌 관계 안에서 내담자는 상담자를 통해 제시되어지는 다양한 영적 활동에 대하여 자신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를 파악하고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Richards & Bergin, 1997).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의 모든 절차들은 관대하고 정중한 태도와 내담자의 동의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Sperry(2012)는 신앙이 있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상담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면 사례개념화를 공유하여 함께 치료목표의 성취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한다고 보았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영적인 부분을 수용하고 이해할 때에 더욱 효과적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결국 사례개념화에서 상담자-내담자의 영적인 소통은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게 되고 상담목표의 설정과 그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는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에 속하는 기독교 상담에 대한 자세와 신학적 입장, 기독교세계관 및 인간관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담자의 현재의 문제에 대하여 치료관계의 본질적 목표인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과 영적 자원의 전략적 적용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상담의 실제에서 구체화하여 사례개념화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의 구성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복

음주의적 기독교상담에서 통합적으로 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가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면밀히 탐색하고 그 구성을 도출하여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론

1) 연구방법

질적 연구는 연구문제의 특성상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Creswell, 2008). 구조화된 설문이나 수량화된 양적 연구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삶의 현상들 속에서 의미들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라 볼 수 있다(신경림, 조명록, 양진향, 2004). 순수하게 나타나는 ‘사태 자체로(Zur Sache selbst)’와 ‘무전제’는 열려있는 현상학적 태도로 연결된다(이관표, 2023). 또한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연구자는 체험의 의미를 우리가 겪은 그대로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접근하여 그것을 풍부하게 기술하고 해석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인간 과학적 연구로 볼 수 있다(김영천, 이현철, 2017). 기독교상담의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는 심리상담적 접근과 함께 사회문화와 기독교 사상과 영성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통합적으로 나타나고 분석될 수 있으나,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상담연구는 일반상담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독교상담에서의 적용에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기독교상담이 지닌 영성의 영역, 기독교의 특성이 접목된 기독교상담에 대한 논의와 상담적 접근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조형운, 2015).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례개념화 연구는 일반상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독교 상담자를 대상으로 사례개념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바,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복음주의적 상담자들의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기독교 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의 근본적 의미와 그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연구주제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는 현상학적 연구는 3-10명 내외(Dukes, 1984)로 권장된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의 주제에 대하여, 능숙한 자료 해석 및 심도 깊은 경험의 유추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연구의 목

적과 주제에 맞게 편의표집으로 이루어졌다. 편의표집은 연구되는 주제에 대하여 가장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례에 속한 연구대상을 구하는 표집 방법으로 (김영천, 2012) 그 경험이 어떠하던지,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충분히 수집되고 조사되도록 노력하였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상담자는 총 7명으로 성별은 남성 2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49-62세 사이이다. 연구대상자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상담에 헌신하여 연구, 교육, 사역, 그리고 상담현장에서 기독교상담의 소명을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상담가들로 구성되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 인적 사항

참여자	성별	나이	직분	직업	기독교상담 경력
A	여	56	협동목사	기독교상담학 교수	21년
B	남	54	목사	기독교상담 센터장	11년
C	여	59	집사	기독교상담 센터장	21년
D	남	56	협동목사	의사/기독교상담 센터장	18년
E	여	58	권사	기독교상담 센터장	16년
F	여	62	집사	기독교상담학 교수	30년
G	여	49	사모	기독교상담 센터장	21년

3) 자료의 분석

연구주제에 따른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다. Colaizzi의 분석은 기술적인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이며, 7단계로 분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도구적으로는 질적 자료 분석과정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Nvivo 12와 함께 EXCEL과 단계별 직접 코딩의 방식을 교차하여 사용하였다. Nvivo의 활용의 경우, 연구자가 면담을 완벽히 녹취하고 전사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자료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질적연구방법론의 연구맥락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제시하여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이현철, 2015). Colaizzi는 연구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에서 의미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뒤에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김분환 외, 1999).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 대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유지하고(신

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연구자의 지향성을 최대한 배제하며 분석하고자 하였다. Colaizzi의 분석 절차(Colaizzi, 1978; Morrow et al., 2015)에 따른 분석과정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Colaizzi의 기술적 현상학적 분석 7단계

1단계	연구 자료 전체를 전사하고 검토
·전사 자료를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 느낌과 전체의 대략적 의미를 파악	
↓	
2단계	연구주제와 관련된 유의한 진술을 도출
·반복하여 읽기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추출 ·일반적이면서도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	
↓	
3단계	의미있는 진술에서 의미형성을 하는 단계
·현상들의 의미를 참여자의 중요한 서술, 짧은 구절들에서 발췌 ·참여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일반적이면서도 참여자들의 경험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술문의 의미를 요약	
↓	
4단계	재진술하며 구성의미를 도출하는 단계
·추출된 의미에서부터 공통된 의미들을 하나로 묶음 ·구성 의미(formulated meaning) 도출	
↓	
5단계	도출된 의미로부터 주제를 도출하는 단계
·도출된 구성의미들을 개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들끼리 묶음 ·추상적인 하나의 동일한 주제(Themes)로 명명	
↓	
6단계	주제에 따라 주제군을 도출하는 단계
·더 큰 동일 개념으로 묶음 ·추상적인 상위개념군인 주제군의 범주로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경험의 현상의 의미들을 공통요소로 묶어 통합하여 범주화	
↓	
7단계	연구 참여자들과 타당성 검증 및 결과 최종 기술
·내적 타당도의 검증과 현상학적 글쓰기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의 과정에서의 경험을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12개의 주제군, 29주제, 94개의 구성의미가 도출되었다.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경험은 크게 상담자 영역(주제군 1~3), 하나님 영역(주

제군 4), 사례개념화에서 상담과정에 따른 구성요소(주제군 5~12)로 도출되었다. 그중 주제군 5와 주제군 6은 내담자 이해를 위한 사례개념화 요인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주제군 5~12 는 8단계의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의 의미를 포함한 구성요소를 상담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표 3〉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경험

구성의미	주제명	주제군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며 시작하게 됨 (시대적) 복음에 대한 잘못된 반감과 심각한 절망감 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독교상담이 필요함 내담자의 욕구는 영적 목마름이어서 하나님으로 밖에 채울 수 없음 예수님 만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신다는 믿음	1)기독교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함	(상담자 영역1) 1. 기독교 상담으로 부르심
상담자가 기독교상담을 하기로 선택함 상담자가 하나님이 주신 상담의 은사를 발견함 상담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르는 삶 상담을 통해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함	2)소명을 따르는 상담자	
일반상담과 다르지 않은 기독교상담 상담을 할 때 일반이론으로 접근 함 상담자는 상담 이론을 잘 알아야 함	3)일반상담이 기본이 됨	(상담자 영역2) 2. 사례개념화를 위한 토대 마련
기독교세계관이 스며들어 있는 기독교상담 기독교세계관의 네 가지 시점(창조-타락-구속-완성) 적용 상담 사례에 대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고민함 상담자의 기독교세계관이 연결이 됨	4)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상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기독교적 접근법을 정립	5)주제별 기독교적 접근법 정립하기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변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함	6)복음의 변증을 준비하기	
이론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함 문제와 연관된 성경말씀을 상담에서 소개함 성경의 메시지로 사건을 해석함	7)성경을 사용함	
상담자는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함	8)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상담자 영역3) 3. 하나님과

<p>사랑과 안정감을 제공함 함께 만나서 머뭇 고통의 길에 함께 동행함 내담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닮은 태도로 내담자를 대함</p>	<p>9)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통로 역할</p>	<p>내담자 사이의 통로로서의 상담자의 역할</p>
<p>문제에 관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나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함으로 간구함 상담자는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함 상담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김</p>	<p>10)내담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동행함</p>	
<p>상담이 만능이 아니며 다양한 한계를 지님</p>	<p>11)상담의 한계 인식</p>	
<p>변화의 답을 주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 내담자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따라감 내담자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감</p>	<p>12)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따라감</p>	<p>(하나님 영역) 4.상담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심</p>
<p>하나님께서서 함께 일하심을 경험함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경험됨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함</p>	<p>13)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p>	
<p>상담자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 받음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 삶 속에서 훈련시키심</p>	<p>14)상담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함</p>	
<p>내담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여 귀하게 여기고 소망을 가짐 내담자의 문제를 다룰 때에 그를 전인적으로 봄 따뜻하고 편안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담자를 수용 내담자의 문제는 죄로 인한 것임</p>	<p>15)내담자를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수용함</p>	
<p>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담자의 마음의 개방성과 자세에 따라 접근함 내담자의 문제는 내담자가 풀어낸다는 진정한 존중의 마음을 지님 내담자의 원하는 정도와 상황에 집중하여 하나씩 상담을 진행함</p>	<p>16)내담자를 존중하여 상담</p>	<p>(구성요소2) 6.내담자를 존중하며 문제를 이해함</p>
<p>내담자의 문제는 가족발달사와 연관됨 내담자의 문제, 상처의 경험을 살핌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히 다룸 증상과 고통은 반복하여 사용하는 방어에서 옴</p>	<p>17)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함</p>	

<p>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룸</p> <p>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영성)</p> <p>욕구와 연관된 내담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p> <p>심리도구로 하나님과의 관계 평가</p>	<p>18)내담자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룸</p>	
<p>내담자가 원하는 목표로 합의함</p> <p>상담방식에 대해 내담자의 동의를 받음</p> <p>상담자의 영적 목표를 합의된 목표의 이면에 둠</p>	<p>19)상담의 목표를 합의하고 영적목표를 세움</p>	<p>(구성요소3)</p> <p>7.상담목표 세우기</p>
<p>내담자가 내면의 중심 경험과 닿는 시간을 가짐</p> <p>내담자 자신의 방어를 깨달음</p> <p>내담자가 자신의 오류(사실 또는 인식)를 깨달음</p>	<p>20)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림</p>	<p>(구성요소4)</p> <p>8.문제에 간혀 있던 내담자의 알아차림을 돕기</p>
<p>내담자의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확인</p> <p>핵심 감정(정서) 및 패턴에 연관된 동기를 파악</p> <p>내담자의 방어를 상담자와 소통으로 파악함</p> <p>내담자의 생존전략으로 인한 곤란을 다룸</p> <p>내담자의 노출된 신경과 같은 아픔이 패턴임</p>	<p>21)내담자의 패턴, 방어와 전략을 다룸</p>	
<p>내담자의 숨겨진 핵심 동기, 믿음, 자동적 사고 찾기</p> <p>내담자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찾기</p> <p>내담자의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상처가 된 오해를 찾기</p>	<p>22)생각의 오류를 찾도록 도움</p>	
<p>비기독교인에게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질문을 던짐</p> <p>기독교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진리 다룸</p> <p>내담자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룸</p> <p>내담자의 문제에 대하여 영적접근을 통해 다룸</p>	<p>23)실존적 주제 통해 진리를 탐색하도록 도움</p>	<p>(구성요소5)</p> <p>9.실존적 주제로 진리탐색을 도움</p>
<p>하나님 안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재해석하도록 도움</p> <p>내담자가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 인식</p> <p>내담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됨</p>	<p>24)내담자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됨</p>	<p>(구성요소6)</p> <p>10.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도록 도움</p>
<p>내담자에게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임함</p> <p>내담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됨</p> <p>내담자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p> <p>하나님을 알아감의 중요함</p>	<p>25)내담자의 깨어진 자아의 빈 여백에 은혜로 채워짐</p>	<p>(구성요소7)</p> <p>11.내담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통로가 됨</p>

방어에서 회개하며 죄의 문제에서 돌이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후 방어가 없어짐 내담자의 삶의 주인이 자기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뀜	26)방어를 회개하며 패턴이 바뀜	
내면의 어려움을 주께 내려놓을 때 회복되고 자유로워짐 내담자의 고통이 감사로 바뀜 내담자가 돌이킴으로 하늘나라 경험	27)내담자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함	
자기위주의 대화법을 고쳐나감 사회 관계 기술을 배우도록 함	28)의사소통 방법을 연습	(구성요소8) 12.성화를 향한 새로운 삶을 연습하도록 도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함 방어에 사용한 에너지를 소명의 삶으로 전환하게 됨(혹은 교육함)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정돈 되고 성화의 삶이 본격화됨	29)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함	

1) 상담자 영역

상담자 영역은 ‘기독교상담으로 부르심’과 ‘사례개념화를 위한 토대 마련’,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통로로서의 상담자의 역할’로 구분되었다.

먼저 ‘기독교상담으로 부르심’ 속에는 ‘기독교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함’으로 인해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 중심과 부르심의 ‘소명을 따르는 상담자’로서 기독교 상담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상담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뭘 이렇게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제 이 쪽으로 이제 저를 부르시기 위한 여정을 이렇게 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모든 크리찬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 거 거든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D>”

또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를 위한 토대에는 일반상담이 기본이 되므로 상담자가 상담 이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과 기독교 세계관(창조-타락-구속-완성)에 기초하여 주제에 따른 기독교적 접근이 정립되어야 하는 것,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변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분야마다 각 이론을 충분히 깊이 파가지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충분히 물어보시고 그 이론이 내 것이 되어서 사용되어야 비로서 다른 이론도 참고할 수 있잖아요.”〈연구참여자 D〉

“기독교상담과 기독교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 공부할 때도 사용되는 비유처럼 치즈 케이크 비유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치즈 케이크에 크림과 빵이 층이 나뉘진 게 아니라 그냥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있는 것이죠.**” 〈연구참여자 G〉

“기독교상담자로 상담에 초기, 중기, 작업, 종결의 과정과 기독교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간관.... 창조된 인간 구속받은 타락한 인간 구속받은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 나라를 만들어가는 인간, 이렇게 네 가지 시점을 놓고 **이 네 가지의 시점이 우리 인간에게는 늘 역동적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창조된 인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간 이 세 가지 시제를 넣어보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A〉

상담자 영역의 마지막으로는 상담자가 사례개념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 내담자의 고통에 함께 하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닮은 태도로 내담자를 대하고, 상담이 만능이 아니라는 상담의 한계를 인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개념화를 위한 모임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부흥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상담자가 자기 작업을 하나님하고 깊이 못하면 내담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연구참여자 A〉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생명을 스스로 던져요,,,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게 상담에서 제 첫째 목표죠...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옷을 입고 온 가장 큰 이유는 눈을 맞춰주기 위함이예요. 눈 맞춰주는 거 아니예요? 하나님인 예수님**

이 눈을 맞추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누워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서서히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같이 저도 누워서 대화해야지...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상담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봐요”〈연구참여자 B〉

“둘이 그냥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게 조금 가기가 편해요. 가다가 넘어지거나 운동에 빠지거나 손에 많거나 **지치거나 어려움이 도착했을 때 손 잡고 같이** 끝까지 우리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중간쯤 이제 혼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럼 거기까지만 같이 가도 된다...”〈연구참여자 G〉

2) 하나님 영역

연구참여자들은 사례개념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의 전 과정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였다. 내담자에게 답을 직접 주기보다는 내담자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일하심에 민감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상담의 과정 속에서 임재하시고 때로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것의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상담자를 돌보시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삶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능해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많은 데 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똥판지처럼내담자가 먼저 얘기해요. 내가 그 ‘우사(구약성경의 인물)랑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전적으로 이 사람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님을 내가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다음에는 그 사람을 움직여 가시는데요. 제일 놀라운 거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게 제일 놀라운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부분이지... 이게 미스테리하니까...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연구참여자 A〉

“내담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요소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게 뭐 있나 싶어요..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인생에서 30세 안에는 뭐 해야 되고, 60세 안에는 뭐해야 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내담자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연구참여자 E〉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B>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소부재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에 임한다..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연구참여자 D>

3) 사례개념화의 단계별 구성 요소 영역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의 의미는 여덟가지의 요소로 구분되었으며 그 구성을 상담의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구성요소1은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상담자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인간관이라 할 수 있다. 상담이론에서 인간관이 중요하듯 성경적 인간관은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여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고 편안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내담자를 전인적으로 인식하며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 속에서 죄의 연관성을 살피는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기대치가 낮아버리니까 언젠가 또 반복할 거야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인거지.. 그러나 복음은 다른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믿음이 상담사에게 존재할 때 한 사람을 대할 때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술 먹고 완전히 우울증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연구참여자 B>

“성경적으로 사람을 보면 죄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샀은 사명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죄라는 것의 원형이 본질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의 삶을 고통 없게 만들어 보려는 모든 시도거든요**” <연구참여자 A>

구성요소2는 내담자의 문제를 경험, 환경, 감정, 반복되는 방어 등을 통해 파악하면

서 동시에 내담자의 자신과 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그의 욕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요소가 훨씬 크죠 물론 이제 상담자 요소도 늘 필요하지만 내담자가 마음 문을 안 여는데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여전히 상담자는 동일하게 이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상담의 팩터는 **내담자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에 따라 달려 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제 본인의 마음의 자세...그거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구참여자 D>

“이게 결국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점검**이 되겠지요...내가 나랑 관계가 잘 되는지, 다른 사람과는 관계를 잘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는지.... 일반 상담에서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안 보는 거죠. 일반 상담에서도 프로이드, 인간중심 뭐 이론들이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연구참여자 G>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은 MMPI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평가 도구잖아요. 근데 타당도 임상도로 나누어서 타당도는 검사 태도를 제하고 임상도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 주는데 저는 **타당도 검사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보고요.**” <연구참여자 A>

구성요소3은 내담자의 동의와 원함을 바탕으로 상담목표를 합의하고 동시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내담자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영적 목표를 살펴보고 계획하는 것이다.

“또 상담을 대부분 단기상담으로 짧게 하기 때문에, 주로 **이분이 가장 다루고 싶어 하는 한 가지 문제를 첫 회기 때 잘 살펴보고** 내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담의 목표를 정하죠. 보통 이제 한 가지 문제를 선택하게 하고.....” <연구참여자 D>

“제 생각에는 **내담자가 기독교상담하기로 동의를 해줬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이나 이야기나 어떤 식으로든지, 얼마만큼

이라도 가능하다고 봐요...제가 생각하는 내담자에 대한 이러한 접근에 대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나는 하나님을 거기서 어떻게 경험하나? 그 경험이 결국은 내담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여 돌이키게 하는가? 이러한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를 안 하도록,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도록....”〈연구참여자 A〉

구성요소4는 문제에 갇혀있던 내담자 내면의 중심경험과 닿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오류와 방어를 알아차리고 내담자의 패턴과 방어 전략, 생각의 오류를 찾아 다루는 것으로 내담자의 타인에 대한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찾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제 쉽게 해서 행동 -감정 -생각이 있고, 이곳의 생각을 찾는데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뿌리를 찾아서 기억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감정들에 숨어져 있는 그 생각, 내 행동과 감정이 리액션을 어떻게 뒀는가 그걸 살펴보거든요.** 감정 뒤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찾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났어요? 어떤 생각을 하니까 그런 감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찾은 이 거짓말 생각을 파악해요.** 이렇게 열매 이제 부적절한 제 열매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쾌락지향적이거나....이런 이제 부적절한 열매들이겠죠. 감정은 이제 뭐 두려움 수치심, 그다음 슬픔 밑에 있는 거 하여튼 그런 감정과 그 속에 생각들.. 그로 인한 행동들을 살펴죠” 〈연구참여자 D〉

“우리의 어떤 아픈 것을 ‘**노출 신경**’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노출 신경은 그곳을 건드리면 항상 너무 아픈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고쳐야 하듯이, 신앙과 삶의 어떤 고뇌와 고통을 건드려주면은 그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연구참여자 F〉

구성요소5는 실존적 주제를 통해 진리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진리에 대한 다름, 삶과 죽음에 문제 다름, 영적 접근의 과정이 포함된다.

“당장 막 이렇게 깊이 사고 안 하는 아이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질문을 던져보거든요...**종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다 하면서 여러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사람은 이제 불펜이든 뭐든 이렇게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당신의 존재 이유를 꼭 찾는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꼭 찾는다면 뭘까? 그러면 엄마의 어떤 사랑의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존에 대해서...” <연구참여자 F>

“저도 상담을 하면서 저의 신학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되었어요. 믿는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궁금해 하는 신앙적인 의문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신학적인 배경을 녹여서 상담할 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연구참여자 D>

구성요소6은 내담자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으로서 내담자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문제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기독교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거죠... 성경에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문답같이 말씀을 건넨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상담에서 내가 상담실에 있을 때 아픈 내담자한테 물어보는 말 중에 하나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거 같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예요? 라고.... 그때 뭘 원하셨어요? 라고 내가 물어보듯이.... 하나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뜻을 알게 되는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C>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를 먼저 체크를 해서 그걸 좀 잡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깨달아가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다른 거 하고 있네... 마음이 이런 거네 이런 거네...하면서 재해석하는게 핵심이

에요.....(예를 들어)억울함이라는 단추가 눌러지면 믿음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 발동해서 버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버력하고 자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서..." <연구참여자 E>

구성요소7은 내담자가 방어에 대한 회개와 함께 깨어진 자아의 빈 여백에 은혜를 경험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강력해요. 말씀은... 어떤 상담보다 강력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요. 상담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한 번은 상담 중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와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잠20:27)’ 이렇게 말했을 때 그분한테는 완전히 그게 정말 망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였대요! 그래서 그 뒤로 그분이...**막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자기가 깨달은 거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였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 막 그 때문에 완전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연구참여자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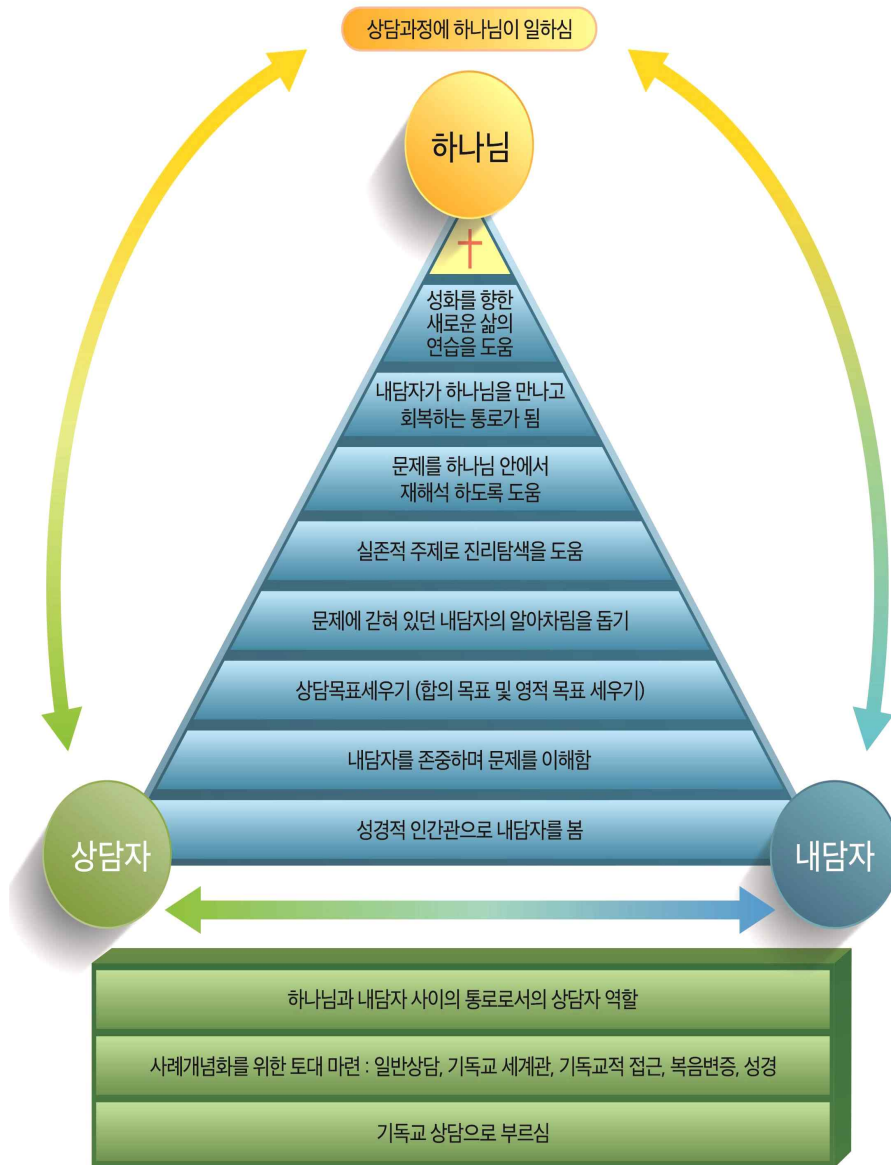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던 모든 시도를 내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는 거하고 저한테는 같은 뜻이더라고요... 네(주님), 그리고 이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라는 뜻이 그럼 이제 제가 제 방식대로 제 뜻대로 이제 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던 방어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좀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더라도 그냥 이건 내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 이게 나의 한계고, 인간 실종이 이런 상태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안고 껴고 가면은 되는데... 그거를 그동안 나는 왜 그렇게 덮고 방어하고 가리고 왔을까? 그거를 내가 깨닫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통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제가 모시고 초대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에 이은 구원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A>

구성요소 8은 새로운 의사소통방법의 연습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연습 등 성화를 향한 새로운 삶의 연습을 돕는 요소이다.

“어제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제는 듣기만 하는 역할로 쓸쓸한 감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도 나의 소원함을 아시고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본과 행동으로 대화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연구참여자 D>

“그게 100%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그런 삶을 서서히 사는 걸 연습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신 거니까 제대로..** 그리고 우리의 교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가.... 성화를 통해 기록해지는데 노력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고. 나랑 같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도 주시고, 또 나를 아들로 딸로 증명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내가 더 이상 거기다가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하고 노력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게 뭐지 그러면 이곳으로 옮겨가도록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A>

이와 같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서 다루어지는 큰 주제군과 주제, 그리고 구성의미를 그림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경험도

III. 닫는 글

1. 논의와 연구의 의의

도출된 결과를 통해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독교 상담자로서의 부르심과 소명을 통해 정체성이 정립된 기독교 상담자는 현대 사회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를 담당할 수 있다.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불안한 정세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상담적 전문성을 가지고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도울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되어가도록 돕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통로 역할을 감당한다.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의 통로로서의 기독교 상담자 역할(Coe & Hall, 2010)은 곧 삼자관계로서의 기독교상담의 특성(Oates, 1986)과 연관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사례개념화를 위한 토대’에는 ‘일반상담이 기본이 됨(최은영, 2015)’,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상담(김용태, 2006)’, ‘주제별 기독교적 접근법 정립하기(안경승, 2012)’, ‘복음의 변증을 준비하기(안경승, 2012)’, ‘성경을 사용함(김준, 2013)’이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발견된 상담자의 일반상담의 전문성,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 기독교적 상담접근, 복음변증을 위한 준비, 성경의 사용 등의 요소는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를 위해 상담자가 지녀야 할 기초이자 토대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나님 관련 주제군은 ‘상담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따라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 ‘상담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도출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상담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며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음(강용원, 2012, 2013)을 알 수 있었다. 기독교상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담자뿐 아니라 상담자 모두를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상담에서 사례개념화의 궁극적 목적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격려하며 함께 내담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구원과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상담적 사례개념화의 구성과 상담과정 관련 영역으로 도출된 8개의 구성요소를 상담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으로 내담자를 봄’과 ‘내담자를 존중하며 문제를 이해함’의 주제

군을 통하여 기독교 상담적 인간이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담자 이해를 위한 사례개념화의 초석이 되고 잣대가 된다. 동시에, '내담자와의 라포형성이 어떠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담목표 세우기'는 내담자 이해와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분석하여 사례개념화가 이루어지면서 치료적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진행된 상태이다. 기독교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내담자와 합의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상담목표를 정하고 동시에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영적 도움이 필요할지를 고민하여 내담자의 영적 목표를 확립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표를 세운 후에 기독교상담에서의 치료적 개입의 흐름을 살펴보면 '문제에 간혀 있던 내담자의 알아차림을 도움', '실존적 주제로 진리 탐색을 도움',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도록 도움', '내담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통로가 됨', '성화를 향한 새로운 삶의 연습을 도움'의 구성요소를 통해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과정 속에 구체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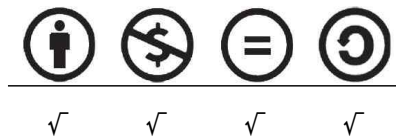
특히 김규보(201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세계관의 창조-타락-구속-완성의 메타시스템이 기독교 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의 큰 틀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물 받은 이들(창조, 구속)은 자신의 악한 길(타락)에서 떠나 회개와 자기부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순종을 통해(구속의 경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소망(완성)을 두게 되고, 소명을 다하는 삶으로 이끌어진다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기독교세계관이 실제 기독교상담에서 메타시스템으로서의 틀로서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존귀함을 상실하고 죄와 고통의 문제로 괴로움 속에 있는 내담자에게 그가 가져온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돕고, 실존적 주제로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상담의 사례개념화 경험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일반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와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 도움의 과정은 내담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재해석하도록 도와주며, 내담자의 깨어진 자아의 빈 여백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경험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까지 삶을 위해 애써왔지만 고통을 가져다 준 자신의 방어를 회개하는데 이르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하나님 인식은 삶의 주인이 자기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내담자는 하나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하

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복된 내담자는 스스로 성화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새로운 삶을 연습하도록 돕게 된다. 성화의 연습에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법을 연습'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습'하기, '방어에 사용되었던 에너지를 소명의 삶을 사는데 사용'하게 됨,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정돈되고 성화의 삶이 본격화 됨' 등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기독교상담의 현장에서 사례개념화의 경험이 어떠한가를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상담이 일반상담과 다른 영역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일반상담보다 작은 영역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상담은 일반상담을 포함할 뿐 아니라 훨씬 넓고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독교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가 일반 상담에서 연구된 요소들을 포함하여 상담적 전문성을 가지고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어주고, 어려움과 연관된 영적이며 본질적 죄와 은혜를 통한 소망의 부분까지 다룸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안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독교상담의 사례개념화의 경험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상담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 논문 투고일: 2023년 09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11월 09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08일



【참고문헌】

- 강연정 (2019). 기독교상담의 통합적 원리와 특징. **복음과 상담**, 27(2), 7-33, <http://dx.doi.org/10.17841/jocag.2019.27.2.7>
- 강용원 (2004).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 강용원 (2012). 목회적 과제로서의 통전적 예배에 관한 구상-예배와 목회상담의 접점. **복음과 상담**, 18, 76-105. <http://dx.doi.org/10.17841/jocag.2012.18..76>
- 강용원 (2013).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전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5, 37-73. <http://dx.doi.org/G704-002003.2013.65..004>
- 고기홍 (2005).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3(1), 3-15.
- 김경미 (2016).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의 관계: 자기통제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3(10), 235-257. <http://dx.doi.org/10.21509/KJYS.2016.10.23.10.235>
- 김경미, 강연정 (2018). 기독교 상담자의 정체성과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복음과 상담**, 26(1), 7-32. <http://dx.doi.org/10.17841/jocag.2018.26.1.7>
- 김규보 (2019). 한국성경적상담 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과제. **복음과 상담**, 27(2), 35-75. <http://dx.doi.org/10.17841/jocag.2019.27.2.35>
- 김계현, 이윤주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 & 이희영(1999).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 이현철 (2017). **질적연구 열다섯가지접근**,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태 (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상담학**. 서울: 학지사.
- 김용태 (2014).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 사례 보고서: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 관점에서 본 해설과 개념화**. 서울: 학지사.
- 김용태 (2018). **기독교상담의 이해와 원리**. 서울: 학지사.
- 김준 (2013). 기독교상담과 성경: 성경적 상담 관점에서. **개혁논총**, 27, 161-188.
- 김재환 (2022). 약물중독상담 통합적 이론 사례개념화 모델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 21, 13(6), 969-982. <http://dx.doi.org/10.22143/HSS21.13.6.66>

- 권진숙 (2023). 기독교 (목회) 상담 사례보고서를 위한 신학적 방법론 고찰. **신학과 실천**, 84, 335-366. <http://dx.doi.org/10.14387/jkspth.2023.84.335>
- 문효식 (2009).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 **국제신학**, 11, 31-66.
- 박안나 (2021).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고찰: Sperry 의 모형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9(2), 109-136. <http://dx.doi.org/10.17841/jocag.2021.29.2.109>
- 박은호 (2021). 행복과 건강문화에 대한 개혁주의 상담학적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71, 105-137.
- 박정, 이은경 (2022). 상담사례개념도를 활용한 계슈탈트 상담 사례개념화: 내담자-상담자 관계와 4단계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4(1), 123-143. <http://dx.doi.org/10.22831/kap.2022.14.1.006>
- 서경희, 김지현 (2008).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57-673.
- 서은경, 원수경, 김수정 (2021). 상담 첫 회기 축어록을 활용한 사례개념화 및 목표 전략 워크북. 서울: 학지사.
- 손승영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285-316.
- 손은정, 이해성 (2002).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 신경림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안경승 (2012).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복음과 상담**, 19, 188-216. <http://dx.doi.org/10.17841/jocag.2012.19..188>
- 안석 (2013). 영성인가? 아니면 상담심리치료인가?-영성지향적 상담심리치료로서의 기독교 (목회) 상담. **신학과 실천**, 35, 435-458.
- 안점식 (2015). **세계관을 분별하라**. 서울: 죠이선교회.
- 양준용 (2023).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비교 스트레스와 일반신뢰의 이중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9(1), 119-154. <http://dx0rg/10.15820/khjss.2023.49.1.005>
- 왕은자 (2001). **소집단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관직 (2007). **개혁주의 목회상담학**. 서울; 대서.

- 이관표 (2023). 하이데거 존재 사유에서 현상학적-해석학적 본질규정으로서의 해석학적 순환:[존재와 시간]의 ‘현존재’의 해석학적 순환에서 [시간과 존재]의 ‘존재’의 해석학적 순환으로의 전회와 관련하여. **현대유럽철학연구**, 68, 297-325. <http://dx.doi.org/10.20974/dasein.2023..68.297>
- 이명우 (2004). **상담 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우, 박명희 (2015). 근거이론에 의한 사례개념화 교육 경험 분석. **예술심리치료 연구**, 11(3), 67-90.
- 이수환 (2016). 치유상담을 위한 선교적 교회의 역할. **복음과 선교**, 34(2), 119-155. <http://dx.doi.org/10.20326/KEMS.34.2.119>
- 이윤주 (2001).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 목록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주 (2001).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슈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79-93.
- 이윤주 (2016). 효율적인 상담사례개념화를 위한 상담사례개념도의 활용.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1(2), 53-72. <http://dx.doi.org/10.15703/kjccsp.1.22016.12.53>
- 이재현 (2020). 하나님과 내담자, 그리고 목회상담자 삼자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적 역동: 하인즈 코헛과 도널드 위니캣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72, 307-330.
- 이지은, 이계경 (2018).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상담학연구**, 9(1), 243-268.
- 이현철 (2015). 한국교회 내 부교역자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 **성경과 신학**, 75, 349-377. <http://dx.doi.org/10.17156/BT.75.12>
- 전요섭 (2007). 현대 목회상담에서 내담자 변화의 주체로서 성령의 역할. **오순절 신학 논단**, (5), 269-298.
- 정정숙 (2002). 한국 기독교 교육의 현실과 대응방안. **통합연구**, 15(1), 7-31.
- 조형운 (2015). 기독교상담에 대한 이해와 과제. **교양학연구**, 2(1), 175-191.
- 주혜선 (2016). 트라우마 사례개념화 양식 (TCFF) 의 개발: 사례개념화 기반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1), 89-125.
- 최윤미 (2019). 상담 이론에 기반한 상담사례의 사례개념화- 대상관계이론, 인지

- 치료이론, 실존 역동적 접근 방식의 사례개념화.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4(2), 27-41. <http://dx.doi.org/10.15703/kjccsp.4.2.201912.27>
- 최은영 (2015). **기독교상담학: 비평과 사례**. 서울: 핏볼트리니티출판부.
- 황규명 (2011).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 Adams, J. E. (1986). **목회상담학** (정정숙 역, *Competent to counsel*). 서울: 홍신대출판사. (원전 1971 출판).
- Beutler, L. E., & Harwood, T. M. (1995). Prescriptive psychotherapie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4(2), 89-100. [https://doi.org/10.1016/S0962-1849\(05\)80082-4](https://doi.org/10.1016/S0962-1849(05)80082-4)
- Berman, P. S.(2018). **상담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례개념화 원리와 실제** (이윤주 역, *Case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planning*). 서울: 학지사. (원전 2009 출판).
- Coe, J. H., & Hall, T. W. (2010). **변형심리학** (김용태 역. *Psychology in the spirit*). 서울: 학지사. (원전 2010 출판).
- Colaizzi, P.(2002).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 therapy.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33(1), 73-112. <https://doi.org/10.1163/156916202320900437>
- Crabb, L. J. (2014).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A model for helping caring Christians become capable counselors*. Grand Rapids, MI: Zondervan.
- Creswell, J. W. (2008).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on,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ukes, S.(1984).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the human scienc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3, 197-203. <https://doi.org/10.1007/BF00990785>
- Eells, T. D. (Ed.). (1997).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ibson, D. M., Dollarhide, C. T., & Moss, J. M. (2010).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 grounded theory of transformational tasks of new counselor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50*(1), 21-38. <https://doi.org/10.1002/j.1556-6978.2010.tb00106>.
- Hunter, R. J., & Patton, J. (1995). The therapeutic tradition's theological and ethical commitments viewed through its pedagogical practices: A tradition in transition. In P. D. Couture & R. J. Hunter (Eds.). *Pastoral care and social conflict, 32-43*. Nashville, TN: Abingdon Press.
- Hurding, R. F. (1988). **치유나무: 목회돌봄 및 상담치료에 대한 종합적 이해** (김예식 역). *The tree of healing* 서울: 장로교출판사. (원전 1988 출판).
- Johnson, E. L. (2007). *Foundations for soul care: A Christian psychology proposa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Kuyken, W., Padesky, C. A., & Dudley, R. (2008). The science and practice of case conceptualization.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6* (6), 757-768. <https://doi.org/10.1017/S1352465808004815>
- Lambert, M. J., & Ogles, B. M. (2004). *The efficacy and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In M. Barkham, W. Lutz, & L. G. Castonguay (Eds.). *Bergin and Garfiel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7th Ed.), 139-193. New York: Wiley.
- Loganbill, C., & Stoltenberg, C. (1983). The case conceptualization format: A training device for practicum.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2*(3), 235-241. <https://doi.org/10.1002/j.1556-6978.1983.tb01740.x>
- Morrow, R., Rodriguez, A., & King, N. (2015) Colaizzi's descriptiv phenomenological method. *The psychologist, 28*(8), 643-644.
- Oates, W. E. (1986). *The presence of God in pastoral counseling*. Waco, TX: Word Books.
- Richards, P. S., & Bergin, A. E. (1997). *A spiritual strategy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241-000>

- Schwitzer, A. M., & Rubin, L. C. (2012).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skills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 popular culture casebook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perry, L., & Sperry, J. (2012). 『상담실무자를 위한 사례개념화 이해와 실제』. (이명우 역, *Case conceptualization*, 2nd ed.). 서울: 학지사. (원전 2012 출판).
- Vanhoozer, K. J. (2009). Triune discourse: Theological reflections on the claim that God speaks, Part 1. In D. J. Treier & D. Lauber (Ed.). *Trinitarian theology for the church*, 25-49.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Case Conceptualiz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Lee, Heyjung* Kang, Yeon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experience of case conceptualiz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meaning, and composition of case conceptualiz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by examining the experience of Christian counselors through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d qualitative research. Seven Christian counseling experts were participated and data collection for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Qualitativ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Nvivo 12, and a total of 94 formulated meanings, 29 themes, and 12 theme groups were derived. The contents of the derived formulated meanings, themes, and theme groups are as follows. The three emergent theme groups related to counselors are 'calling to Christian counseling',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case conceptualization' and 'experience of the counselor's role and limitations'. One emergent theme group related to God is 'God's work in the counseling process' and eight emergent themes of case conceptualization experience were found as a composition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Viewing the client from a biblical perspective', 'Respecting the client and understanding the problem', 'Establishing counseling goals', 'Self-awareness of the client who is trapped in his/her own problem', 'Existential questioning to help client explore the truth', 'Creating a new paradigm for problem-solving in their life', 'The client meets God and experiences grace and repentance', 'Designed to help practice a new life towards sanctification'.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case conceptualization, phenomenological study, Christian counselor, case conceptualization experience

* Kosi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Counseling

** Kosi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Professor